



◇끝내 울음을 터트린 나라. 할머니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끼고 있다.

병든 할머니·아버지 수발 7년째

'안무가' 꿈 접은 소녀가장

서울 강남역 변화가. 병풍 같은 빌딩 숲을 한참이나 헤치고 나서야 주차장 옆 간판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코골을 자극하는 화학 본드냄새와 갖가지 공구가 나뉘는 웅장한 공장 안. 그 한 구석에 초라해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 잡고 있다. 햇빛은 커녕 환풍조차 되지 않는 이 곳은 다른 어떤 나라에 가족의 보금자리다.

컨테이너 박스 생활

막 학교에서 돌아온 나라(16·진선여중3)는 교복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아버지 이상선 씨(47)와 팔순이 넘은 할머니의 약부터 챙긴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간질환이 심해지면서 정신을 놓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 학교에 가도 직격탄에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나마 아버지 곁을 지켜오던 할머니 최진규 씨(83)마저 류마티스 관절염이 도져 거동을 못하게 됐다.

나라의 키와 맞닿는 낮은 천장. 지하 식당의 환풍관이 가로지르는 탓에 온갖 먼지와 냄새가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다. 이렇다보니 나라네 식구들은 호흡기 질환을 몸에 달고 산다.

나라네 식구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8월. 아버지가 씨가 95년에 '간경화증 말기' 진단과 함께 일종의 간질증세를 보이는 '간성혼수'라는 병을 얻게 되면서, 급격하게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다. 게다가 '간성혼수'에 걸린 아버지는 황설풀하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라네 학교조차 가지 못했다. 급기야 어머니가 생활고를 비판한 나머지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소녀가장으로 지낸 지 벌써 7년째. 그동안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로 가산이 모두 탕진됐고, 은행돈까지 쓰게 되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돼버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돼 정부지원금조차 없이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수'에 걸린 아버지는 황설풀하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라네 학교조차 가지 못했다. 급기야 어머니가 생활고를 비판한 나머지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소녀가장으로 지낸 지 벌써 7년째. 그동안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로 가산이 모두 탕진됐고, 은행돈까지 쓰게 되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돼버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돼 정부지원금조차 없이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한달만 15만원 넘게 들어가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10만여원의 공과금 등 생계비를 댈 수 없는 형편이라 친척들과 친구들이 보태주는 30여 만원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날그날 '연명만 하는 처지'에, '무용 안무가'가 되고 싶은 나라네 이모가 꿈 접은 지 오래다.

생활보호대상도 안돼 나라의 손을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그저 아버지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사춘기 소녀가장의 애가 한없이 울조려든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7 영등주차장 내
전화번호 : (02)557-5637
후원계좌 : 신한은행 215-02-116646(예금주 이나라)
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5월 29일 (수)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지녀독서강좌' = '아동들에게 어떻게 유익한 동화를 골라서 읽을까?'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마련한 자녀독서교육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열려가는 깨끗하게 사라진다. 동화읽는 어른모임 소속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이 강좌의 참가비는 무료. (02)852-0525
 ■호림박물관 '불교미술명품전' = 호림박물관은 8월 31일까지 불교미술 명품 140여점을 전시한다. '불교미술명품전-자비와 장엄의 미'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불상, 전적, 공예, 불화, 사경 등 5가지 소주제로 구성된다. 11세기 경에 만들어진 고려 '조조대장경'을 비롯, '조조반야비담마식신족론 권 12' (국보 267호) 등을 감상할 좋은 기회. (02) 857-3874.
 ■영은미술관 '동방의 숨결전' =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이 6월 6일까지 3인 불교작가들의 대표작을 모은 '동방의 숨결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일상적 체험을 불교의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려는 김기철, 방해자, 양주해 씨 등의 도자기, 펠트천 염색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031)761-0137
5월 30일 (목)
 ■고산스님 '초청법회' = 서울 구파발 흥곡사는 오전 10시 대법당에서 정경사 조실 고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무주상 보시는 내가 많이 가져서 남을 돕는게 아니라 더불어 살기위해 내 것을 나누는 일'이라고 가르치시는 고산스님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불자의 지혜를 배워보자. (02)381-7970

관장을 통해 청소년들이 남북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오후 6시 30분 서울서초동 정토회관에서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6월 28일까지 계속된다. (02)587-8996

6월 1일 (토)
 ■용진사행회 '성지순례' = 남해보리암, 여수항일암, 화순관음사... 원효스님이 창건한 보리암은 낙산사 흥련암, 강화 보문사와 함께 한국 3대 관세음보살 성지. 또한 남해의 소금강 금산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여행의 출발은 오전 7시 을지로 6가 국립병원 앞. 참가비는 1박2일에 5만원. (02)2279-1191

6월 2일 (일)
 ■좋은벗들 '통일대화마당' =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관은 어떤가? 좋은벗들은 하자센터 진화관 부

■불교환경연대 '북한산 살리기 산행' = 불교환경연대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에서 북한산 살리기를 위한 정기 산행모임을 갖고 있다. 북한산 살리기 홍보 행사를 겸하고 있는 이산행은 아름다운 북한산을 둘러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2)734-1915
 ■육수종합복지관 '가족사랑나눔 야외회' = 청소년들이 홀로 외롭게 여행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가족 사랑을 전하는 기회.
 육수종합복지관은 오전 9시 서울 노원구 태릉 푸른동산에서 독거노인들과 청소년들이 사랑을 나누는 행사를 마련했다. 청소년을 둔 가정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02)2282-1100

귀한 손님에 전통 절음식 접대

우리 절 우리 신도

삼광사 전통요리보존 연구회 박숙희 부회장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 가는 삶의 실상은 무상(無常)함이다.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순리를 따르게 마련이지만 부산 삼광사의 새벽 법당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법당을 맡아보는 보살이 몇 명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7년째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 삼광사 전통요리보존연구회 부회장 박숙희 보살(54·부산시청 동백홀 대표)의 신심은 변할 줄을 모른다.

"부처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박 보살에게 매일의 새벽예불과 108회기도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이 되었다. 부산시청내의 동백홀을 운영하는 박 보살의 바쁜 일과를 아는 이들은 그의 한결같은 신심에 감탄한다.

13년 전 초파일, 삼광사와 첫 인연을 맺은 박 보살은 첫날부터 연등 접수받는 일을 했다고 하니 인연이 예사롭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몇 달 뒤 박 보살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구인사 기도도에 동참했다. 4박 5일 동안의 기도 중 환희심을 체험한 박 보살은 이후 삼광사의 절야생정원과 기도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신심을 키워왔다.



◇박숙희 보살(맨 오른쪽)이 도반들과 함께 사찰 행사에 쓸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3년 전, 새벽예불에 오면 중음주 운전자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박 보살의 신심은 더욱 깊어져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로 승화되었다. 3년 전부터 운양하고 있는 동백홀도 각종 법회나 불교 행사장으로 제공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음식값을 할인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박 보살

가 된다는 것이 박 보살의 생각.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박 보살은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준비한 음식을 귀한 분들이 맛있게 드실 때 피곤함을 잊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삼광사의 품격을 대변하는 음식상을 차려온 이들은 초파일을 앞두고 부처 바쁜 날을 보냈다. 초파일을 앞두고 열렸던 노인경로잔치 때는 4천 개의 도시락을 준비했는가 하면, 봉축 행사에 차려질 음식 준비를 꼼꼼히 챙기느라 박 보살은 자신의 업무를 접어두고 삼광사로 출근하다시피 했을 정도.
 박 보살은 "초파일 잔치가 끝나면 전통요리연구회보존회의 요리사자격 증반을 무료로 개설할 예정"이라며

주인의 말

도원스님 부산 삼광사 주지
 삼광사는 사찰의 규모만큼 신도도 많고 질 살림도 한두 사람만으로는 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큼니다. 특히 삼광사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 초대되는 귀빈들을 접대하는 일은 삼광사의 인상을 심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중대한 일을 전담해 봉사해주시는 전통요리연구회보존회의 회원들은 삼광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분들입니다.
 전통요리연구회보존회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박숙희 보살은 첫마음을 견지해 온 신도입니다. 매주 철야영양정진에서 정진하는 박 보살을 보면 초발심을 잃지 않는 불자의 전철을 보는 듯합니다. 또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찰 전통 음식 전시회를 기획, 많은 이들에게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창기부터 같이 활동해 온 김영희 총무(48)는 "실천수행이 철저하고 남모르게 시주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마음도 바르게 쓰는 등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진실된 불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광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중화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직목시켜 감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의 마음기쁨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염불·간경·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부드러운 마음, 미묘한 마음이야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담고 추후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윤리와 인과공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리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리와 인과공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전수경 전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전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함축, '전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존재전인, 여러 심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지침서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아연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견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 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취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할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긴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대상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진과 실천 방법들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불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특종 및 지장보살 예불과 지장법문을 함께 다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할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비 속에서 불림 없이 영가친도 입장소멸 소연성취 향산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